

# RAONATTI 4<sup>TH</sup> IN THE PHILIPPINES

- SEPTEMBER 9 -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한다는 것은,  
결코 미련하진 않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용기다.  
도전이다.

결코 현실에 안주 할 수 없음을 자각한 자아의 소치이자,  
더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정의 발포이리라.

지금 우리의 열정은,  
이곳 Philippines의 North Luzon 곡창지대 Cabanatuan city의 습이 퉁퉁 막히는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이곳 사람들처럼 점점 까대져가는 피부를 봐도 이제 슬프지 않다.  
Tricycle capital이라 불릴 만큼 Tricycle이 많은 이곳에서,  
도로의 대연은 더 이상 우리의 폐를 갇아먹는 애벌레가 아니다. 그것은 생활이다.  
우리는 살아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깨어있다.  
모든 것들이 정해진 틀 속에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여기에만 급급했던 한국에서의 생활과는 달리,  
모든 일정들을 우리가 직접 계획하고, 실행하며, 때로는 시행착오를 겪고, 때로는 함박웃음을 지으며,  
하나라도 더 보고 듣기 위해 눈과 귀를, 그리고 마음을 크게 열어 제쳤다.

피부에 와 닿는 기온, 그리고 가슴에 와 닿는 마음의 온기.  
둘 다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9월의 이야기, 지금 시작한다.



## 목차

1. Goodbye Korea, Magandang hapon po Manila! ; Arrival
2. A letter from the Filipino history; Manila city tour
3. Fundamental is the most important! ; YMCA O.T
4. Going to Cabanatuan, getting in the community! ;

Moving to Cbnt. city

5. Robinson mall ; Cabanatuan city tour
6. Nueva ecija YMCA O.T
7. Happenings in valle (발크리에서 생긴 일) ; Valle Cruz
8. Salamat Po ! ; Welcome dinner party!
9. Dancing, Singing... Performance!!! ; Academic Olympic
10. Class in Day care center
11. Bridge of Community; Language Class
12. End And...



## 1. Goodbye Korea, Magandang hapon po Manila! ; Arrival

솔직히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짧지만 강렬했던 발대식과 부친 은혜의 집에서 마지막 만찬, 출국 전 짧았던 송 사장님과 아나 간사님과의 포옹... 다음 한 다음날 떠오르는 조각난 필름 같이, 고작 몇 안 되는 이런 장면들이 출국 전 기억의 전부다. 본디 짧았던 내 기억력의 랏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이곳 생활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 여기고 싶다.

작열하는 태양아래 숨이 턱 막히는 덥고 습한 공기, 적도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실감케 했던 기후는 대구 출신인 필자에게 오히려 익숙했다. 다른 팀원들과는 달리 입국심사에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통과한걸 보면, 이곳 Philippines은 필자에게 분명 친숙한 곳이라!!!

맛이장으로 돌아 나온 우리는 현지 스텝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었다. Kuya Pabs. 까투잡잡한 피부, 작은 키, 곰살머리의 Pabs는 우리가 네번째라서 인지 능숙(?)하게 리드했다. Pabs와 함께 마닐라 YMCA로 이동한 후, 같은 건물의 호텔에 짐을 풀었다.





## 2. A letter from the Filipino history ; Manila city tour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곧바로 Manila의 명소를 돌았다. Manila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San Agustin church. 라거 스페인 식민지의 아픔을 간직한 이곳은 고풍스러운 웅장함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서려있는 듯 했다.

다음 장소는 Jose Rizal 감옥. 부당한 스페인 권력에 맞서 필리핀 국민들의 구국 의지를 고취시켰던 Jose Rizal은, 그의 동상이 시민들의 자동차 번호판에 찍혀있을 만큼 국민적 영웅이다. 감옥에서 Rizal의 일생을 배우고, 끝이아 위에서 언급한 동상으로 향했다.

우리가 오기 며칠 전, 홍콩 관광객들이 현지인에 의해 피살당했던 도로를 지나쳤다. 그곳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때의 놀라움을 지우지 못한 듯 했다.





### 3. Fundamental is the most important! ; YMCA O.T

Manila에서의 둘째날이 밝았다. 9시부터 우리는 호텔 건물 2층에 있는 YMCA에서 현지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필리핀 YMCA의 역사와 조직도, 주요활동 등에 대해 Kuya Pabs가 자세히 설명해주었다. 특히 YMCA의 기본 정신, Mind-Body-Spirit으로 연결되는 역삼각형을 설명할 때는 그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마음 몸 정신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삼위일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는가?



Kuya Pabs의 YMCA 소개가 끝나고 우리는 연이어 Kuya Tax 목사님에게 간단한 Tagalog 대화를 배웠다. 그리고 5개월 동안 우리가 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리는 시간도 가졌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이뤄내야 할 것은 바로 Integration이다. 통합, 즉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온 우리가 그들과 친구가 되어 Community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곳에 녹아 든 우리는 그 다음 이 지





역사치를 분석해내야 한다. 청소년과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해 자발적 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주기 위해선 무엇보다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종 그룹활동, 프로그램,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 또 다른 시작은 늘 두렵다. 그러나 역시 언제나 그랬듯 또 다른 시작은 나로 하여금 늘 가슴 뛰게 한다.

#### 4. Going to Cabanatuan, getting in the community! ; Moving to Cbnt. city

Cabanatuan city. 마닐라에서 차로 3시간, 필리핀 북부지역(North Luzon)의 벵봉사 중심지, 오늘 우리의 목적지이자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의 무대가 될 이곳은 덥고 습한 기후 때문에 눈이 많고, 가히 Tricycle의 수도라 불릴 정도로 자동차 보다는 Tricycle이 넘쳐나는 전형적인 시골지역이다.



한국에서의 한 낮 햇빛을 밤 불케 하는 9시의 마닐라 태양을 등지고, 우리는 Cbnt. City로 출발했다.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컨지스텝 Kuya



Mark를 만났다. 푸근한 성격과 풍채와는 동떨어진 가는 웃음소리의 대학 교수 Mark는, 차로 이동하는 동안 풍만한 체형을 입증이라도 하듯 늘 우리에게 먹거리를 챙겨주었다.

가는 도중 우리는 Subig bay를 잠깐 들렀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 해안도시인 이곳의 바다는 유명 관광지만큼이나 맑고 예뻐다. 이곳 YMCA 관계자들과 점심 식사를 하고, 약간의 물놀이(?)를 마친 후 우리는 서둘러 길을 나섰다. 이곳은 오후 6시만 되면 어둑어둑해진다. 땅거미가 내릴 무렵, 우리는 드디어 우리의 숙소가 위치한 Kapitan pepe에 도착했다!!!

숙소에 대한 첫인상, 생각보다 넓고 깨끗했다. 넓은 거실과 2개의 화장실이 딸린 시양풍의 하얀 집. 그곳에는 앞으로 5개월 동안 우리와 함께 이곳 생활을 꾸려나갈 현지 코디 Kuya Morito와 Ate Mayet, 그리고 우리의 Baby sitter인 Kuya Alex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부푼듯한 나머지 부드러운 카리스마마저 느껴졌던 Kuya Morito, 첫 만남이지만 이모같이 편안했던 Ate Mayet, 약간은 엉뚱한 듯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든든했던 Kuya Alex...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다!!! 한국에서 수백킬로 떨어진 필리핀, 그 중에서도 시골지역인 이곳 Cabanatuan city, Kapitan pepe #88. 내가 지금 있는 곳, 바로 여기가 또 다른 삶의 터전, 우리 동네다.



## 5. Robinson mall ; Cabanatuan city tour

주말이 밝았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말에는 일정이 없다. 하루라도 먼저 이곳을 돌아보고, 하나라도 많이 알아서 이곳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싶은 필자에게는 분명 불행이었다.

그렇다고 잠자코 집에만 있을 수 없었던 우리는, 이곳 Cabanatuan city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붐비는 Robinson mall로 향했다. 신기하게도 여긴 시골지역이지만, 여기저기 Mall이 많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곳이 바로 이곳, Robinson mall이다. 패스트푸드점이 모여있는 식당가, 서점, 쇼핑몰, 카페 등 비교적 대도시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이곳에서는 모두 누릴 수 있다. 심지어 이곳 층에 위치한 Gloria jeans Cafe는 무선 인터넷이 된다는 사실!!! 여담이지만 이 길을 앞서 간 3기들 역시 여길 자주 들렀다고 한다.

뒤에 안 사실이지만 Mall 층에 위치한 Robinson supermarket에는 한국인의 매운 맛 라면과 진짜 라면 □ 라면이 있다. 아마 앞으로 여기서 지낼 5개월 동안, 모범사원이 매일 회사 출근도장 찍듯이 이곳을 드나들리라!!!





## 6. Nueva ecija YMCA O.T

약간은 심심한 주말을 보내고 난 후 맞는 첫 주, 월요일 우리는 이 지역을 관찰하고 있는 Nueva Ecija YMCA 를 찾았다. 우리의 현지 코디 Kuya Morito가 사부총장으로 있는 곳이다!!! 공교롭게도 YMCA office 바로 앞이 Tricycle의 집합소였다. 운행을 잠깐 중단하고 대기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곳은 늘 Tricycle로 붐빈다. 그리고 또 한번 공교롭게도 이곳엔 한국인이 목사님으로 계시는 하나로 교회가 있다. 팀원 중 기독교 신앙을 가진 Ate Enoch, Soo에게 희소식이었다.

곧바로 우리는 Kuya Morito와 함께 현지 O.T를 가졌다. 이곳 사람들의 생활, 지역의 특징 등 앞으로 생활하면서 참고해야 할 사항, Nueva ecija YMCA 및 서로에 대한 소개가 주된 내용이었다. O.T는 간단한 영어로 진행되었는데, 시험 위주의 영어공부의 한계를 절감케 했던 시간이었다.



O.T 후 우리는 점심식사를 위해 YMCA에서 100m정도 거리에 있는 University cafeteria를 찾았다. 대학 식당이라 우리 또래의 학생들로 넘쳐났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곳 필리핀은 중학교가 따로 없고, 바로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보통 나이는 17~8세다. 역시나 신기한 듯 우리를 쳐다보는 학생들이 많았다.

다음 일정이 있었기에 우리는 서둘러 Rice 한 공기과 진열된 Filipino 음식 중 1~2가지를 고른 다음 빈 테이블로 가서 앉아 식사를 했다. 필리핀은 이곳 음식들 중 Chicken adobo(한국의 찜닭과 비슷하다)와 Sisig(돼지고기를 구운 후 다져서 채소와 버무리 음식)을 가장 좋아한다. 누누이 말하지만 이곳 Philippines는 필리핀에게는 제2의 고향이다!!!

## 7. Happenings in valle (발루크리에서 생긴 일) ; Valle Cruz

Valle cruz. 지구촌 다큐 'w'에나 나올법한 쓰레기 산으로 유명한 바랑가이 (Philippines 의 최남 지역단 위, 우리나라의 동이나 리 단위에 해당) 다.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쓰레기 더미가 우리들로 하여금 눈을 비비고 다시 보게 만들 만큼의 산을 이루고 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5살 꼬마아이에서부터 60대의 노인들까지 코를 찌르는 이 악취터미에서 플라스틱을 주워담아 팔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은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무엇을 보고 배우는가, 그리고 무엇을 느끼고 그로 인해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가는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안타깝게 들릴 진 모르겠지만, 5살부터 쓰레기 터미에서 시간을 보낸 아이는 그 2세까지 같은 길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곳에 위치한 Day care center (Valle cruz의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기관, 우리나라의 유치원에 해당, 이하 D.C.C)에는 항상 아이들과 학부모들로 붐빈다.

말 그대로 이곳 교육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D.C.C에서 앞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Class를 갖는다. 매주 월수금은 Art, Science, Tae Kwon Dance를 번갈아 가며 수업을 진행하고, 화목은 아직 미완성인 D.C.C의 앞마당에 놀이터를 꾸미고 교실을 가꾸는 활동을 하게 된다.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서 이들에게 무엇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큰 무언가를 얻어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너무나 순수했지만 이들을 뒷받침 해주지 못했던 열악한 환경들, 배움에 대한 갈망은 어느 나라의 그 어떤 이들 못지 않게 강했지만, 가르침에 대한 열정은 그에 쫓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우리는 이제 매일 그곳에 간다. 그곳에서 아이들과 눈빛으로, 입으로, 손길로 정을 나눌 것이다. 많이 당황하고, 때로는 힘들지도 모른다.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낯설게 다가갈 수도 있고, 오해를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심이다. 적어도 우리가 그곳에서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열정적이고 진심 어린 선생님, 그리고 친구가 되리라.

활동의 시작으로, 우리는 지난 2주간 D.C.C의 외벽과 내벽에 페인팅을 하고, 앞마당에 놀이터를 만





들기 위해 바닥을 다지는 작업, 즉 벽돌을 날라다 깔고 모래를 퍼 나르는 작업을 했다. 이렇게 D.C.C를 완성하는 작업은 앞으로 5개월간 계속 될 것이다.

땀 흘릴 때 부는 바람이 더욱 시원한 법이다. 지금 우리들이 흘리는 땀방울, 보상으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단지, 다만, 그저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Volunteer가 아닌 Community Worker로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흘리는 땀방울이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으면 그뿐이다.

2003년 한국을 강타했던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을 기억하는가? 우리는 전 세계적인 휴양지 '발리'는 아니지만, 우리의 부대 발리(Valle Cruz)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끔 할 예정이다. 다들 기대하 시라!!! 우리는 다짐한다. 정말 그들과 같은 그들이 될 것이라고 말이다. 그 누구보다 절실하고, 힘겹고, 가슴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우리의 2010년의 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

## 8. Salamat Po ! ; Welcome dinner party!

항상 그러하듯이, 그 지역을 방문한 손님에게 환영한다는 의미의 의례적인 행사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곳 Nueva ecija YMCA를 후원하고 있는 지역 유지분들의 모임에 우리가 정식으로 초청된 것이다. 이름하여 Welcome dinner party!!! 실질적으로 이곳 YMCA를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부거운 자리이기도 했다.

저녁시간에 맞춰 우리는 시내에 위치한 Filipino Restaurant로 향했다. 행사의 답례로 우리는 태권복과 사물놀이를 선보일 예정이었기에 오랜만에 긴장감도 느낄 수 있었다. 이곳에 오고 난 후 갖는 첫 공식적인 행사, 이 짧은 한 문장이 이 행사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학교 교장선생님, 사업가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분들이 YMCA를 후원하고 계셨다. 비교적 젊은 30대부터 6~70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연령대도 다양했다. 그분들은 자리에 얽매이지 않는 유머와 재치로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들은 진심어린 충고도 잊지 않았다. 우리들이 결코 부엌을 가르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하고, 웃고, 즐기기 위해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다. 낯선 문화, 환경, 육체적 고통, 사람관계 등 이곳 생활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것도 함께...

하지만 그들은 역시 또 말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얼마나 진실되게, 적극적으로 Community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모든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이다. 어찌보면 당연한 말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적지 않은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서로의 소개, 식사, 축사 등을 거쳐 행사의 순서가 드디어 우리차례가 되었다.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기에 다소 좁은 장소였지만, 우리는 서둘러 도복을 챙겨 입고, 배경음악을 준비했다. 우리의 퍼포먼스가 단순한 이방인의 눈여겨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의 진지한 표정에서 알 수 있었다. 심지어 Restaurant의 종업원들까지 우리의 몸짓 하나하나에 연신 셔터를 눌러댔다.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 우리들의 머릿속엔 많은 생각들이 교차했다. '우리의 첫인상은 그들에게 어떻게 와 닿았을까?',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그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답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가 써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5개월 후 제출해야 하는, 온통 여백뿐인 전공시험 답안지 한 장을 받은 셈이다.

## 9. Dancing, Singing... Performance!!! ; Academic Olympic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전 세계 여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YMCA는 그 숫자만큼이나 하는 일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활동 무대인 Nueva ecija YMCA는 매년 필리핀 북쪽 지역(North Luzon) 학생들의 각종 경연대회, Academic Olympic을 개최해오고 있다. Team Dancing, Duet song, Sports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열리는 이 행사에는 약 수백명의 학생들이 참가한다. 덕분에 우리는 비교적 많은 이곳 학생들을 한 곳에서 만나고, 또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가치를 얻게 되었다.

올해 행사는 NEUST, Nueva Ecija 과학 기술 대학교 Memorial Hall에서 열렸다. 우리는 당일 행사장에 오전 10시경 도착하였는데, 그 규모와 열기에 놀랐다. 우리를 더 놀라게 했던 것은 행사장에 도착







하자 마자 우리들의 퍼포먼스, 즉 태권복, 사물놀이, 밴드공연을 무대에서 선보여야 했던 사실.

우리의 공연이 이들에게 이곳에 잘 알려진 한국의 대중가요 보다 낯설게 다가갔을진 모른다. 하지만 한국 대중가요, 드라마 등으로 인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이곳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공연이 그 무엇보다 값진 시간이 되었으리라. 안산에서의 2주간 지역훈련, 여수에서의 2박 3일 사물놀이 캠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우리는 행사의 막바지까지 경연대회를 관람할 수 있었다. 초등부, 고등부, 일반부 댄스 경연, Solo·Duet song, YMCA Song에 맞춘 립 안무 등 학생들이 오랜기간 갈고 닦은 끼를 마음껏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먼저 다가와 말을 거는가 하면, 옆에서 대뜸 포즈를 취하며 카메라를 들이대기도 했다.

항상 반반인 것 같다. 새로운 사람 장소, 경험들이 늘 신기하고 즐겁다가도, 한편으로 낯선 두려움, 잘 이겨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잘 적응한다는 것, 잘 살다 온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구나... 새로움의 현장, 낯선의 중심 하지만 또 다른 우리의 러전, 마을인 이곳에서 우리들의 머릿속은 건설적인 고민들로 가득 차 있다.

## 10. Class in Day care center

세상을 모두 담아낸 크고 맑은 눈, 세상의 모든 행복을 머금은 미소, 인간세상에서 길을 잃은 바로 이 천사들이 지구상 어디가에 또 있을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즐겁기만한 아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이 처한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며, 필자를 더 안락하게 했다. 어쩌면 이렇게 느끼는 것도, 우리가 그들의 눈높이, 시각에서 그들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준, 가치와 같은 잣대들을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매주 월 수, 금요일 우리는 D.C.에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시간을 갖는다.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시간. 매주 금요일은 안산 지역훈련 때 배웠던 태권무를 아이들과 함께 하기로 했다. 그리고 월요일과 수요일은 각종 Art(Paper, Painting, Music ...) 활동과 Science Kit 을 함께 한다. 지난 첫 수업때는,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자는 취지에서 Name tag를 만들었다. 우리가 아이들의 얼굴을 일일이 사진으로 담아 출력한 후, 이름이 적힌 종이에 붙여 커버를 씌우고 목걸이로 만든 것이다. 각자에게 자신만의 ID Card가 생긴 것이다!!!





아이들의 이름이 제마다 독특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 D.C.C Class의 선생님인 Ate Mayet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이름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다. 사랑관계는 이름 외우기에서 부터

시작된다고 그 누군가 말하지 않았던가. Wilson, Bryan, Ashley... 우리가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환하게 웃음짓는 아이들의 얼굴... 다음주 월요일이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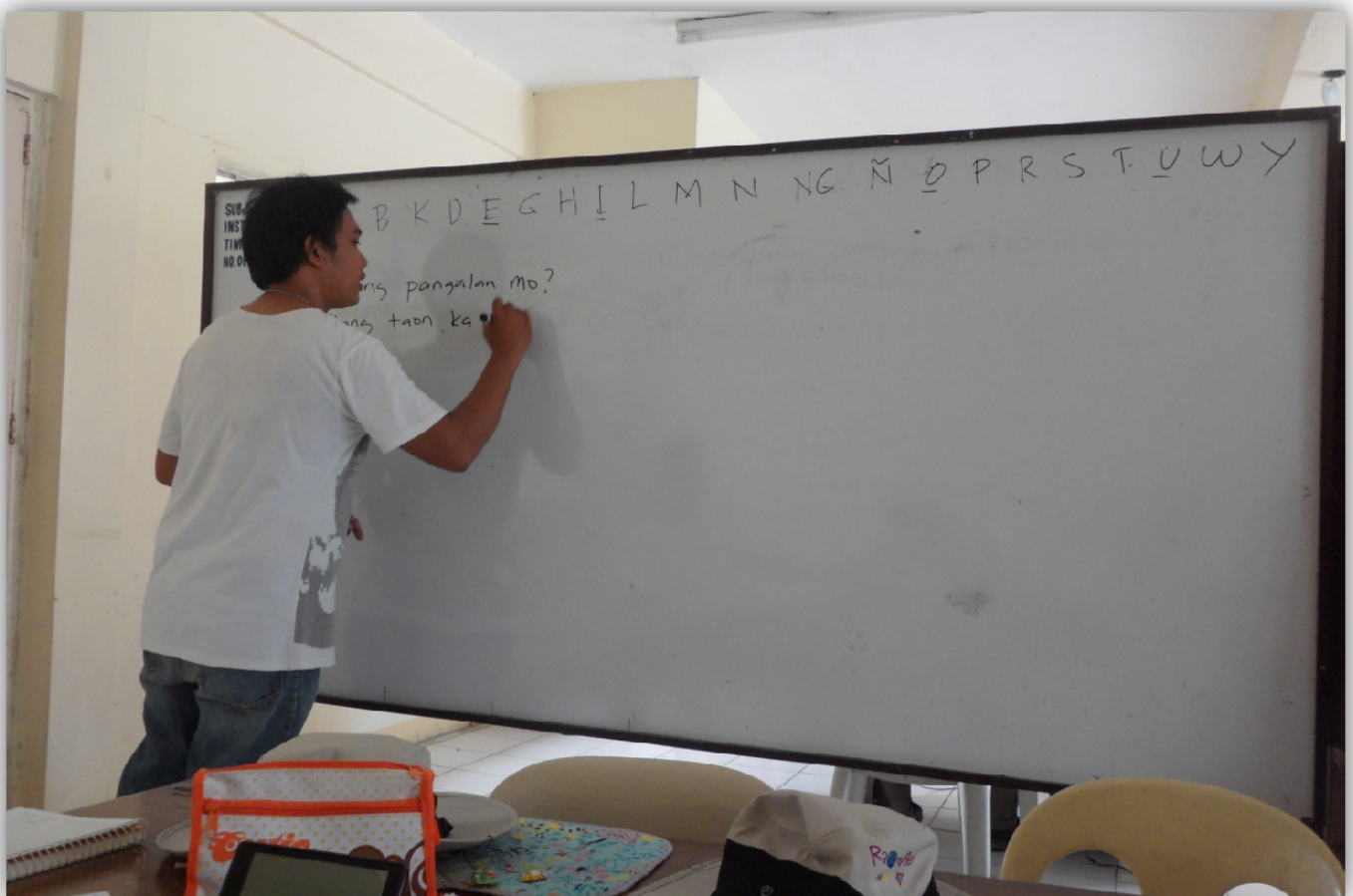
이 밖에도 우리는 Paper Art 시간에 비행기를 접어 날려보기도 하고, 경쾌한 비트에 맞춰 태권복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이러한 낯선 활동들을 통해 이들의 시각과 생각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조심스럽게 가져본다.



## 11. Bridge of Community ; Language Class

언어의 장벽. Esperanto가 없는 한 항상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다. 특히 우리들과 같은 Community Worker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때문에 Kuya Morito 역시 언어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한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의 스케줄에는 매일 1시부터 3시까지 두 시간 동안 Language class가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Kuya Morito에게 Tagalog를, 그리고 이곳 YMCA에 소속돼 활동하고 계시는 대학교수님께 영어를 배우고 있다.



Tagalog의 경우 기본적인 철자와 발음기호, 실생활 대화와 단어 중심의 교육을 받고 있고, 영어의 경우 그날 정해진 한가지 주제에 대해 대화해 보는 시간을 가진 후 정리하는 Report를 써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어는 어렵다. 하지만 그 나라의 말에는 생활 방식, 사람들의 생각, 문화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언어를 제일 먼저 말살하려 했던 그들의 의도가 짐작이 가는 대목이다.

우리가 이렇게 언어공부에 열을 올리는 것도 어쩌면 우리가 Filipino를 이해하는 과정의 첫걸음이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기 때문은 아닐까? 특히, 많은 이야기들로 우리와 소통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눈망울을 보면서,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해 그저 웃음짓고 마는 허탈감과 좌절감들은 Tagalog 수업시간 우리의 눈을 더욱 빛나게 했다.

단어 하나하나가 모여 문장이 되고, 여러 문장들이 모여 대화가 되고, 대화가 모이면 생활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Filipino가 된다.

## 12. End And...

순살같이 9월이 지나갔다.

말 그대로 9월은 적응기간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엌 한대기 보단 Community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단계, 그들의 삶을 목격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차츰 잊어가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생각들로 하루도 버티속이 복잡하지 않을 날이 없었을 정도로 9월은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겨 주었다. 앞서간 3기 단원들의 활동을 이어 나가간다는 것 이곳 사람들과 진정한 친구가 된다는 것 그 안에서 나 자신을 한 단계 발전시킨다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무엇 그 어떤 때보다 뜨거웠던 5개월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한국은 지금쯤 가을산풍이 등산객들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고 있을 것이다. 부끄러운 벼가 고개를 숙이며, 농부들의 결실을 두려할 것이다. 이제는 한 낮에도 반팔보다는 긴팔에 외투가 더 제격일 것이



다. 하지만 이곳은 여전히 뜨겁다. 새벽 5시 우렁찬 닭 울음소리와 함께 떠오른 태양은 오후 5시, 자신의 임무를 다 할 때까지 35도가 넘는 더위를 남기고 지구 반대편으로 사라진다.

가을의 풍요로움, 시원함, 높은 하늘이 그림자 없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대신 1년 내내 푸른 산과 들만, 새로운 친구들을 얻었다.

익숙함이 아닌, 낯선 환경의 새로움이 우리를 움직였던 9월, 많은 번뇌와 다짐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9월, 이십 몇 년의 짧은 인생 동안 겪었던 기운이 가장 뜨거웠던 9월, 하루하루 살아가며 가슴속에 와 닿았던 열정 또한 가장 뜨거웠던 9월, 우리를 울리고 웃겼던 수많은 기억과 추억들이 한 권으로 저물어 간다.





하늘아래 새로운 곳을 없다. 여긴 이미 우리의 또 다른 터전이다.